

평론

조우찬

사랑의 전이

벽에 마음의 창문을 낸다.
창문으로 박 다원의 사랑이 옮겨 온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사랑한다.
몸과 마음으로 또 사회적 실천으로...
박 다원은 그림을 그리는 것 밖에 모른다.
그래서 사랑을 그리고 그림으로 사랑을 나눈다.
벽에 걸린 네모꼴 창에 사랑을 담아 모두에게 사랑을 옮겨 준다.
아픔 끌어 안기가 두려워 그래서 사랑 옮기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창 가.
박 다원 창문에 쏟아지는 하양 햇살은 망설이다 망설이다
그런 고통을 와락 끌어 안고 표백되는 정화의 눈부심 인가보다.
아픔은 내가 갖고 사랑을 너에게 주려고

안팎의 interface

25점의 회화와 비디오 아트로 구성된 아픔 끌어 안기 이다.
어린이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끌어 안고
동굴 벽화를 그린 고대인 마음 되어 희망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그림들 이다.
크레용을 처음 쥔 아이가 생각나는 대로 칠을 한 듯한 그림.
그래서 밝고 자유스럽다.
쿠냐크나 니오의 동굴에서 보았을까
아니면 어린 날 꿈에서 보았을까
정리되지 않은 희망과 좀체 이뤄지지 않는 갈구가 담긴 그림.
그래서 원초적 이다.
여기 그림들은 원초적인 發話를 담았다.
그래서 "아(A)!"소리를 낸다.
환한 캔버스에 아이들 그림의 천진난만함과
원시 벽화의 상징적 의미가
두터운 채색으로 하나되어
모두 밝은 색으로 활짝 웃는다.

박 다 원의 비디오아트

아픔과 사랑이 더불어 있는 비디오아트는
사랑에 따른 아픔과 힘든 삶을 생생한 화상으로 모은다.
물질적 풍요와 탐욕과 권력, 허영 사치, 낭비, 화려함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
인종학살, 굶주림, 불타고 파괴되는 고향.
사랑은 그 명암의 균형이다.
떨쳐버리기 어려운 아픔을 끌어 안고
가슴 박동이 귀를 울리도록 달리는
긴박한 운동감, 결핍과 희망,
고통과 사랑의 인터페이스로써
생명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박 다 원과 창문 효과

박 다 원의 그림은 햇살이 환한 창문이다.
저 쪽에서 즐거운 웃음소리 들린다.
헌데 이 창문에는 안팎이 없다.
우주 안에 우두커니 있는 창.
창을 가운데 두고 하늘과 땅이 경계 없이 자리 잡고
인간과 신이 서로 다르지 않게 마주 본다.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된다.
그리곤 너나 없이 환하게 웃는다.
즐겁게 논다.
창에 너를 향한 기도가 흐르고 우리 희망이 햇살 되어 비친다.
그래서 이 그림은 환하다.
맑다.
재미있다.

흔한 추상 속의 추상

10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이 그린 추상화.
그림이 하나의 납작한 표면임에 솔직한 이들이다.
그래서 색채나 형체가 이념화되기도 한다.
박 다원의 이념은 사랑이다.
꼭 추상화를 그린다는 의식은 없다.
박 다원은 김 정희의 이념미(理念美)를 겸손하게 이어 간다.
시(時).서(書).화(畵)가 일치되는 추사의 이념미.
서권기(書券氣)와 문자향(文字香)으로
심의(心意)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은 추사의 작품
세한도(歲寒圖)에 혹해 완당에 몰두했던 박 다원의 지난 날
나름의 심의(心意)를 화폭에 열심히 담은 결과
오늘의 그림에 이르렀다.
심의창(心意窓)을 그린다.
창을 넘나드는 부더러 운 바람, 꽃 내음, 와 그러 떠 들대는 즐거운 웃음소리,
신이나 뛰노는 아이들, 풀빛,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는 환한 햇살을 색채나 형체에 기대지 않고 그려낸다.
눈을 감고 선을 굿듯 그림을 그린다.

1999.6

평론 조우창